

잠뽕 드시겠습니까? 짜장 드시겠습니까?



진성오 소장역
심리카페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시간이 점심이라면 더 좋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여도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중국집 앞에서 서고 이제 잠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을 먹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잠뽕인가 아니면 짜장인가? 고민할 필요 없다. 뭘 선택하던 당신은 필자가 만들어 놓은 뒤통에 걸린 것이다.

지난 시간에 필자는 두 부부의 사례를 들면서 프레임이란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하며 이야기의 끝을 맺었다. 지난 내용을 짧게 다시 기억해보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목마르지 않아요?”라는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 남편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둘간의 관계가 좋을지 혹은 더 나빠질지 ‘이면의 의미’를 남편이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인 자신이 목마른 걸 알리기 위해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 중에

자신이 목마른 것을 남편이 목마른 것으로 돌려 표현한 것이든, 아내는 남편에게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점은 목이 마르냐 그렇지 않느냐는 질문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앞에서 독자에게 잠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을 먹을 것인지 물었다. 아무엇을 선택했는가? 뭘 선택하던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것은 당신이 중국 음식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다른 음식은 가능한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남편이 뭐라고 하던 남편을 소위 말해서 ‘을’의 위치에 두도록 한 것이다. 왜냐하면 뭐라고 답하던 남편은 부인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세상에서 질문은 대부분 권력자가 피권력자에게 하게 되어 있다.

설득이나 최면 대화 기법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주제 안에서 생각이 머물게 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대화나 설득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은 너무 교묘해서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지 당사자도 모르게 작동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도 모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프레임이라는 전제 안에서 유지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말한다. “날 사랑하지마...”

이 말의 문자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프레임은 무엇인가? “날 사랑해...”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사랑할 것이라는 전제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다른 예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것 중 하나가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마!”이다. 당신은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면 우선 파란색 코끼리를 생각해야만 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용만큼이나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틀(프레임)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부모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가득찬 물을 들고 부엌에서 걸어나올 때 아이로 하여금 물을 쏟게 하기 위한 프레임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을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된다. 큰 소리로 “야야! 물 쏟지마라!!!”

/당신의마음연구소장



포스코대우, 印尼 의료봉사활동 진행

포스코대우가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8일까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머라우케군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건강한국성재단과 함께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 나선 국내 및 현지 의료진 20여 명과 포스코대우 파푸아주재 임직원 자원봉사자 40여 명은 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분야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한다.

/포스코대우



GS건설, 저소득층 청소년 하복지원금 전달

GS건설은 지난 3일 한국구제기아대책기구에서 저소득층 가정 고교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지원 사업을 위해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GS건설 임직원이 전승림 기아대책기구 부회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GS건설

갈길 먼 산업안전 보건



기지수첩
최신웅
(정책사회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달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 도중 전국급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 ‘위험성 평가 올바른 실시’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 모습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산업안전보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매년 약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정부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26만 명을 넘었고, 이 가운데 사망자만 3만 6000명에 달했다. 산재 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된 많은 주장과 갈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두 이슈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분명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도 우

리 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돼야 할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19살의 김군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지도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2년의 시간만큼 사람들의 기억에도 많이 잊혀졌지만 아직 우리 주위에는 김군과 같은 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건설·조선·화학 등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관리하고,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안전보건 불공정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이들이 없도록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고, 국민들 또한 산재사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grandtrust@metroseoul.co.kr



홈플러스, KS-SQI 평가 3년 연속 1위

홈플러스는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평가에서 3년 연속 대형할인점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인증 수여식에서 이상진 한국표준협회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상한 후 인증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BNK경남은행, 창원 취약계층 위해 선포기 기탁

BNK경남은행은 지역 저소득·취약계층의 행복한 여름 나기를 돕기 위해 창원시에 ‘2018 행복한 여름 나기 선포기’를 기탁했다. 황윤철 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은 4일 오전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두번째)에게 ‘2018 행복한 여름 나기 선포기 증서’를 전달했다.

/경남은행

인사

- ◆**고용노동부** ◇ 과장급 전보 △서울강남지청장 김명기 △서울남부지청장 강요원 △인천북부지청장 함병호 △양산지청장 김준휘 △구미지청장 이승관 △천안지청장 권호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유재식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이창열
- ◆**국토교통부** ◇ 실장급 승진 △항공정책실장 손명수 ◇ 국장급 전보 △철도국장 황성규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서울본원 △융합연구정책센터 소장 김주선 ◇ 전북본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기능성복합소재연구센터장 김태욱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장 이성호 △구조융복합소재연구센터장 정용채(직무대리)
- ◆**무역보험공사** ◇ 본부장 보임직책 변경 △투자금융본부장 이도열 ◇ 본부장 직무대행 △글로벌영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양규 △리스크채권본부장 직무대행 김석희 ◇ 부서장급 전보 △사회적가치혁신부장 손지모 △운영지원부장 방종열 △심사부장 이은근 △신성장금융부장 장만익 △경기북부지사장 유용중 △부산지사장 이경래 △광주전남지사장 이두원 △파리지사장 박재형

- ◆**서울시교육청** ◇ 지방이사관 승진 △정독도서관장 백종대 ◇ 지방부이사관 승진 △마포평생학습관장 정재현 ◇ 지방부이사관 전보 △교육행정국장 장성훈 △총무과장 이연주 △양천도서관장 안은용 ◇ 지방서기관 전보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 임찬식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김중락
- ◆**EY한영** (승진) ◇ 본부장 △품질위험관리본부 이동근 ◇ 파트너 △강석훈 △김기세 △김동길 △김진용 △김철홍 △김희영 △박정익 △심상학 △심창용 △양재호 △오광철 △오재영 △육일진 △이기

- 수 △이근희 △이윤기 △이재훈 △장호열 △정우호 △정일영 △한도현 △홍우철 ◇ 상무 △김선업 △김영진 △김유준 △송용영 △정수환 △최태웅 △최주희 (선임) ◇ 원장 △산업연구원 변준영 ◇ 마켓/인더스트리 리더 △김범중 △김영석 △김형민 △박남수 △전상훈 △정인석 △최재원

부음

- ▲**홍중대씨 별세**, 홍동호(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홍동진(대동공업 대표이사)씨 부친상, 김태동(필택 대표)·김정국(전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정태수(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대표이사)씨 장인상 = 4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층 1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2-2258-5940.
- ▲**김중고씨 별세**, 고광봉(교보증권 랩운용부장)씨 장인상 = 3일 오전 0시40분, 강원도 인제군 남면 인제도리안 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033-461-0404.
- ▲**김순예씨 별세**, 임삼현(기업은행 전무이사)·상호·상준씨 모친상, 이만영·이규상·김희태씨 빙모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2-3410-3151.



이대목동병원, 아프리카 말라위대양간호대학장 방문

아프리카 말라위 대양간호대학 제신타 모텐지(Jasinth a Mtengezo) 학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했다. 세계질적건강연구 학술대회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제신타 모텐지 학장 일행은 학술대회 기간 중 평소 활발히 교류하고 있던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이대목동병원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9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085호